

2015.08.18. PM1:30 <다시 봄> 36차 회의 @총여실

참여:
불참:
지각:
속기:

회장단	혜윤, 다현
집행위원장	
재무국	건호
미디어홍보국	건호, 민정
국제컴퍼스국	민정
생활복지국	민경, 상희
정책국	불가피, 영리

0. 생활나눔 & 체크

벌써 2주 뒤 개강이라니.. 개강이라니.. 세다페는.. 우한봄은.. 우리는..
<미라클 벨리에> 보러가영

1. 활동 보고 및 상황 공유

8월 11일 (화)

- 다시 봄 35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 여름방학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숍 활동보고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했습니다.
- 총여학생회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활동보고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했습니다.
- 총여학생회 1,2 분기 활동보고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매체팀 2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8월 12일 (수)

- 우리 한 번 만나봄 3회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 회장단이 이화교지와 인터뷰했습니다.

8월 13일 (목)

-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서에 연명했습니다.
- 회장과 집행부가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포럼팀 2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8월 15일 (토)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설문지를 작성하고 수합했습니다.
- 언니네트워킹 2015 페미니즘 캠프 <풍문으로 더럽소> 홍보 요청 관련 소통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포럼 섭외 메일 보냈습니다.

8월 18일 (화)

- 다시 봄 36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2. 중운위 안전 공유

논의안건

1. 제52대 총학생회 제4분기 예산

제52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총학생회 회칙 제80조에 따라 예산을 중운위에 상정하고 발제하였습니다.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공영사업비, 특별활동지원금, 특별자치단체지원금 등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영사업비 관련하여 체육부에 연구제 지원금으로 2100만원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전달하였고, 2100만원의 50% 혹은 그 이하로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와 특별공동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발제하였습니다. 자전에서 릴레이 강연회에 대한 질문이 있어 섭외 비용으로 100만원을 잡았다고 답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집행위원회 예산안 작성은 자율경비 선택으로 바뀐 이후 학생회비 투명 운영

공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제52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제2분기 결산 수정 보고

제52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결산안 공고일에 공고했던 2분기 결산사항에 누락된 것을 수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통편집버스 항목 3월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적자가 13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정된 사항에 대해 재공고하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제52대 총학생회 특별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

총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단체에서 학생회비 전체의 0.075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지원금에 대한 예결산 제출이 불분명하여 배분이 투명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예결산안 제출방식이나 공개방식에 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예자위 소집을 해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50% 선지급에 대해 총동연과 자전에서 책임감과 신뢰의 문제라는 의견을 주어 관련 항목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연과 이과대에서 특별자치단체 자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확대운영위원회 전에는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선안은 1학기 특자체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학생회칙 개정안 검토

학생회칙 TFT 내에서 만든 수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자격 박탈 조항에 관해서는 중운위에 항목이 없어서 모순이 일어난다는 점, 박탈 이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과반 회장이 자동으로 확운위원이 되는지 여부 등 논의가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문대 비대위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권한대행에 관하여는 비대위가 세워지기 전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이고, 9장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대와 동연에서 TFT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규정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족수 미달로 폐회하였고, 재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5. 수강신청 제도 문제 상황 공유

먼저 과사무실과의 논의 문제는 공대에서 과사에서 미리 배정한 과목의 마일리지 차감 문제제기, 맥스 마일리지에 범 단과대 차원의 논의 부재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자전에서는 전공자 정원으로 인한 자유전공 신입생들의 전공기초 수강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대, 이과대, 공과대 모두 과사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교무처의 중앙 차원의 설득 및 통제 능력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단과대 맥스 마일리지 논의에 관하여는 단과대와 단과대 사이의 소통이 없어 상경경영대를 비롯하여 마일리지 상한선이 적절치 못했다는 사회대, 이과대, 공과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학교 본부의 선부른 제도 강행과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시기의 문제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무처가 현장 대처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기는 문제들마다 차기에 반영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희망과목이 아닌 마일리지를 부여한 사람의 수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 서버 문제에 대한 책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6. 학생회관-대강당 공간구성 논의

백양로 프로젝트로 학생회관 지하에 확보되는 일부 공간에 대해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가져와 자치공간 우선순위 배정과 공간 배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1순위는 용재관 철거로 인해 공간을 빼앗긴 9개(역도부 포함) 중앙동아리, 2순위는 연협과 자전, 동연, 3순위는 국제대와 장인위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연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공개 모집을 제한하였고,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을 위해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부총학생회장의 의견과 자전 찬성의견에 따라 9개 동아리 다음 순위로 장애인권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합, 총동연 산하 중앙동아리, 그리고 단과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간 배정에 관하여는 공용공간보다 자치공간을 최대한 내는 것으로 하되, 장인위 공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균등하게 평수를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 9월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공유

그간 단과대가 선별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이고, 준비 미흡과 졸업식 일정 등으로 9월 29일로 최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어 진행에 대한 국제대 질문에 대해 일단은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이라 답하였고, 사전 미팅에서 입장시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연에서 9월 입학생들의 의미있는 행사참여를 위해 뒷풀이 혹은 단과대 발제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단과대별로 상황이 달라 수요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에서 국제캠퍼스 진행에 관한 제안을 하였고, 이과대와 간호대에서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우스 오티 등으로 인해 공간대여 문제가 있어 일단 국캠으로 하되,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신촌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8. 제28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제 특별활동지원비 신청

상대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제 특별활동지원비(2,504,470원)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학생처와 이한열 기념사업회 지원이 많아 작년대비 30만원 줄은 금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과대 제안으로 영정사진과 액자, 향로, 촛대 등 비소모품의 경우 일단 특공비를 지원하고, 단과대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경우에는 판매를 하여 특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연, 사회대 찬성으로 신청액수대로 의결하였고, 기획단 자구노력 등 아쉬웠던 부분은 내년에 더욱 잘 반영하여 학생사회 모두가 부담하는 공영사업비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안전

1. 총장 선출제도 논의 공유

총장선출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할 수 있는 장치인 인준투표 절차가 삭제되었고, 전 현직 총장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혜 부여 논란 등 얼마 전 채택된 총장 선출제도에 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선출 TFT 내에서는 실천단과 다른 방식으로 총장 검증단을 꾸릴 것이며, 특혜논란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총학생회와 직원노동조합 및 교수평의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단운 위 내에서도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제안하였습니다.

2. 합동응원전 버스 특별활동지원비 정산

지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5% 특별비 지원에 의해 총 비용 900만원 중 225만원의 버스 비용을 특별비 지원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여름방학 제실 시간표

- 하지 않기로

4. 살림살이

(1) 신촌 총여실

- 쓰레기는 나가면서 바로 버리기 / 설거지는 바로바로

(2) 국캠 총여실

- 가이드북 정리 / 도어락 요청

5. 사업 및 논의 안전

국제캠퍼스국	-
정책국	(1) 페미니티 [첨부자료1] - 진행상황 체크 (2) 우러한반만나봄 [첨부자료2][첨부자료3] - 다음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19日, 26日) (3)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 세미나, MT 평가서 진행상황 공유 - 매체팀: 진행상황 공유 - 포럼팀: 진행상황 공유 - 센터 요청 기획안 작성 및 발송 (이번 주)
생활복지국	(4)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 센터에 강의료 지급 요청 완료 - 평가서 정리 상황 공유
미디어홍보국	(5) 홈페이지 (8월 중) - www.dasibom2015.com - 콘텐츠 업로드 / 미팅 / 결제 필요 - 활동보고/우한봄/세다페/자기방어훈련 업로드 - 우한봄 업로드 필요
재무국	(6) 3분기 결산보고 (7) 4분기 예산

(7) 가이드북 배부대

- 배치 날짜

(8) 세연넷 고소

- 이미 신고한 거 -> 진정서 발송 완료
- 아직 신고 안된 거 -> 증거량 고소장 진정서 써서 경찰 말고 검찰로 바로 보내야 함

(9) 성평등센터 홍보 기획안 [첨부자료4]

- 피드백 반영해 수정해서 센터에 보내기로
- 디자인 시안 및 플래카드 게시 사진 사례 필요

(10) 0.5학번 오리엔테이션

- 8월 29일 오후 1~4시
- 8월 19일 오후 4시 총학생회실 회의: 자리 배치, 입장순서, 주의사항 등 공지

(11) KUBS 연고전 홍보 카드뉴스 사건

6. 기타안전

(1) 다시 봄 회의 - 방중 매주 화요일

(2) MT - 8/28~8/29(금~토) 청평 - 취소..?

[첨부자료1] 페미니리 정리안

1. 현황

- (1) 목록화 완료 (정책국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2) 학생들이 와서 이용해도 책의 배열이 크게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한 스티커 작업 중 (미완료)

2. 해야 할 작업

- ① 스티커 부착 -> ② 스티커를 고정하기 위한 투명테이프 부착

※ 유의사항

- (1)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지 가이드로 해당 선반의 이름 옆에 미리 붙여두었으며 스티커는 페미니리 들어가자마자 왼쪽 책꽂이의 가장 오른쪽 가장 위 칸에 있습니다.
 (2) A-1, A-2, A-3, A-4, A-5, A-6, B-1, B-2, B-3은 스티커 부착(①의 과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3) 기타(D-3) 분류는 스티커를 따로 부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에 다른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다는 점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 외 스티커가 떨어졌거나, 책꽂이에 있지 않아 자리를 모르겠는 책은 카페 정책국 게시판에 들어가 페미니리 목록 최종을 참고하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 임의 분배안

		비고
상희, 영리	B-4, B-5, B-6, A-1	A-1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건호	C-1, C-2, C-3, A-2	A-2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민정	C-4, C-5, C-6, A-3	A-3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불가피	D-1, D-2, E(NEW)	E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다현	A-4, A-5, A-6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혜윤	B-1, B-2, B-3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첨부자료2] 우리 한 번 만나봄

불가피

1. 제목, 컨셉, 카피
 2. 구글독스 설문지

*설문지 상단에 들어갈 프로젝트 설명을 써주시는 분이 안 계신 줄 알고, 저도 적고 있었는데 카페에 올라온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일부 편집해서 사용합니다. 스크를 압박을 생각해서 일부 편집해서 사용했어요.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목> 사례집

어떤 언행이라도 당사자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차별이자 폭력이고 혐오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다시봄에서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차별, 혐오, 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위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제보해주세요. 수집된 사례들은 질적, 양적 자료로써 학내 차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사례집 발간에 사용됩니다.

▶수집된 사례들은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및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례들은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신의 제보가 사례집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보시 말씀해주세요.

(이 둘이 모순되지만...둘 다 필요한 말 같아서...하나는 지문, 하나는 질문으로 구성할까요?)

*사례 각각에 번호를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님 안 붙이는 게 나을까요?

사례 01 택시를 타고 온 여자친구에게 "또 택시탔어? 너 X나 사치하는 X이다, 난 너같이 사치하는 X들이 제일 싫어"

사례 02 여학생이 낸 생리결석계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며 "이런 애들은 당해 봐야 한다"

사례 03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남학생에게 "많이도 안 줬는데 유난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조롱

사례 04 교수님이 짧은 하의를 입은 조교에게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네가 강간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야"

사례 05 강의 중 뜬금없이 교수님께서 레깅스 얘기를 꺼내시며 "난 요새 여자들 미친 것 같아. 왜 내복을 밖에도 입고 나가? 정신 나간 것 아니야?"

사례 06 모 걸그룹 멤버의 외모를 칭찬하는 여학생에게 선배가 "우리 @@ 컴투게더 가야겠다?"

문제들

1. 제보한 사례가 복수인 경우 어떻게? 1) 각 사례마다 설문을 받는다. 2) 통으로 받는다.
 2. 질문 배치 순서, 질문지 길이
 3. 질문지가 너무 취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진 않나요?
 4. 추가할 항목, 뭘 항목, 어투, 분위기(톤)...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사례집에 발언과 사건개요만 묻지 않고, 당시 느꼈던 감정(회고적(retrospective) 질문은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설문지에 되도록 넣지 말라고들 하지만)과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대처/반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넣은 이유는 사건을 스냅샷으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꼈고, 그 일에 대응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했고 혹은 못했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 같고 등등 최대한 좀 두텁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인데요, 대처/반응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뭘 했습니까?"(뭘 안 했다면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함의를 가지고)"라고 적대적/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질문: 불쾌감을 느꼈던 부적절한 언행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설명 부족 (질문 워딩 다시)

답변:

●질문: 사례제공자님께서 당시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선택지:

*답변을 완전 개방형으로 할까요, 아니면 선택지 제시+개방형으로 혼합할까요?

●질문: 사례제공자님께서 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대처하셨나요?

선택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 항의를 하였다.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질문: 혹시 사례제공자님께서 위 사건을 문제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택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상급자(교수, 선배 등)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건을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해서, 당황해서, 개인의 의견/취향이라고 생각해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유:

●질문: 사례제공자님께서 위 사건을 문제화하거나 상담했을 때 상대방, 주변의 반응/태도는 어땠나요?

선택지:

●질문: 사례제공자님께서 위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혹은 현재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질문: 지금 제공해주신 사례는 귀하 본인의 사례인가요?

선택지: 예(본인의 사례인 경우), 아니오(지인의 사례인 경우)

—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해 —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항목: 제보자, 사례제공자,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정보

질문: 사례제공자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사례제공자님의 당시 신분, 지위, 직위?는 무엇이었나요?

선택지: 교수,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항목: 행위자, 가해자,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

질문: 위 사례의 행위자(가해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위 사례의 행위자(가해자)의 당시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선택지: 교수,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항목: 행위자와 사례제공자의 관계

질문: 사례제공자님과 사례##는 어떤 관계였나요?

선택지: 교수와 학생, 선후배, 친구

●항목: 발생장소

질문: 사례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선택지: 강의실, 회식장소, 사석, 모바일

학내 공공장소(도서관), 학외 유흥공간, MT/수련회 등 숙박시설,

●항목: 차별행위 구분

질문: ① 제보해주신 사례가 무엇에 대한 차별/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제보해주신 차별차별/폭력행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신체조건,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학벌/학력, 성희롱(육체적, 언어, 시각적 행위), 기타

선택지 추가: 학습능력? 사생활 간섭

*선택지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음 → 중복선택?

●항목: 추가 인터뷰

질문: 제보해주신 사례를 풍부히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혹시 사례제공자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추가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선택지: 예, 아니오

질문: 예라고 응답해주신 경우 어떤 수단이 편하신가요?

선택지: 대면 인터뷰, 이메일, 전화, 인터넷 문자(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톡 등)

●

사례집 발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첨부자료3]

프로젝트 설명 :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수도 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일수도 있습니다.

강의 중 맥락없이 던져진 교수님의 썰렁한 농담, SNS에 달린 댓글, 술자리에서 내뱉어지는 말들, 충고로 위장된 훈계 모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의해 가해지기도 하지만 당신에게 가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약자를 비웃을 때 좋은 도구로 사용되지만, 당신이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에도 좋은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기에, 우리를 불편해하거나 지적하는 사람들은 '유별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땡몬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언행이라도 당사자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차별이자 폭력이고 혐오입니다. 연세 대학교 총여학생회 다시봄에서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차별, 혐오, 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위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제보해주세요. 수집된 사례들은 질적, 양적 자료로써 학내 차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사례집 발간에 사용됩니다.

▶수집된 사례들은 제보자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보가 사례집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보시 말씀해주세요.

사례 :

택시를 타고 온 여자친구에게 “또 택시탔어? 너 X나 사치하는 X이다, 난 너같이 사치하는 X들이 제일 싫어”

여학생이 낸 생리결석계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며 “이런 애들은 당해봐야 한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남학생에게 “많이도 안 췌는데 유난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조롱 교수님이 짧은 하의를 입은 조교에게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네가 강간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야”

강의 중 돈금없이 교수님께서 레깅스 애기를 꺼내시며 “난 요새 여자들 미친 것 같아. 왜 내복을 밖에도 입고 나가? 정신 나간 것 아니야?”

모 걸그룹 멤버의 외모를 칭찬하는 여학생에게 선배가 “우리 @@ 컴퓨터더 가야겠다?”

[첨부자료4]

사업명	학내/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가칭)		
담당국	정책국, 미디어홍보국	협력부서	
학내 관계부서	성평등센터		
진행날짜	9월		
사업의도	- 총여학생회에서 성폭력 사건 관련해 문의해서 상담한 경우에 연세 대학교에서 전문상담원에게 성폭력 상담을 받거나, 성폭력 사건을 학칙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 학내 성폭력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사업 내용	1.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평등상담실을 홍보한다. 성폭력 사건이 있거나 혹은 성폭력인지 아닌지 고민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이나 공적인 처리가 가능한 기관임을 홍보한다.		

	2. 대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의 예시를 제시하여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① MT 술자리나 동아리 뒷풀이에서 성폭력적 언행이나 원치 않는 스킨십 ② 카메라 이용 촬영 ③ 데이트 폭력: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물리적/정신적 폭력) 3.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의 세부 규정에서 대다수의 학우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린다. (예: ①가해자와 피해자 중 단 1인이라도 현재 연세대학교 구성원(교수, 교직원, 학생)인 경우 전문 상담센터에 상담 및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②제3자가 가해를 인지한 경우에도 역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③공간적으로 ‘학외’에서 일어난 사건도 ‘내부 구성원’의 가해 또는 피해가 있다면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등)
대상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신촌캠퍼스 학생들
홍보방향	- 1의 경우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온라인은 와이섹, 총여학생회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오프라인은 스티커(화장실 부착)와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스티커와 플래카드가 경험상 가장 가시성과 노출도가 높았다. - 2,3의 경우 총여학생회 페이스북과 공식 홈페이지에 FAQ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재한다. (역량상 가능하다면 플래카드도 제작 및 홍보)
진행내용	- 성평등 센터의 기존 홍보도 겸한다 (예: 총여학생회 포럼 등의 사업에서 성평등 센터 리플렛을 같이 배부한다.)
예산	- 디자인 ① 스티커 ② (30만원) - 스티커 인쇄 비용 (화장실 개수 파악, 견적 내서 예산 알아볼 필요) - 플랑 인쇄 비용 (10만원)
예산 문제점	성평등센터가 단순 신고기관으로 인지될 우려
기타	주최/주관에 총여학생회와 성평등센터 이름 병기하는 것도 고려 가능

성폭력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부끄러움 +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됨 + 언제든지 접근 가능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성평등센터’

게시 사례 사진: 서강대